

8 키에르케고르는 그 당시에 풍비하던 헤겔철학을 비판하여, 그는 웅대한 짐을 지었으나 그 자신의 실존은 그 곳에 거처할 자리가 없어 밖에서 떨고 있다고 풍자했다. 헤겔은 사변적으로 역사 발전의 과정을 전개하면서 그것이 이른바 세계정신의 자기 발전의 길이라고 하면서 그 안에 인간이 설 자리를 마련하지 않음으로써 역사라는 에테올로기에서 인간소외라는 결과를 빚었다고 했다. 실존소설가 카프카는 그의 소설 성벽에서 이러한 인간소외의 현상을 그렸다. 거대하고 튼튼한 성벽의 문은 닫혀 있고 사람은 그 밖에서 소외된 채 그 성벽을 빙빙 돌고 있을 뿐이다. 거처를 잃어 버린 실존, 그럼으로써 홀로 소외자로서의 고독을 씹어야 하는 것이 오늘날의 인간이라는 것이다. 이런 이들이 실감하고 또 절망했던 현실은 날로 구체화되어서 한동안은 인간소외를 가장 불 붙는 이슈(issue)로 삼아 왔으나 지금은 깊은 짐승처럼 큰 구조적인 조건 안에서 소외된 사실 자체도 있어 버린 채 꾸역꾸역 말은 일을 하며 시간에 자신을 내어 맡기고 있는 시대에 이르렀다. 공산주의는 프롤레타리아의 해방을 지상과제처럼 내세워 공산국가를 형성했다. 그럼으로써 분명히 프롤레타리아는 돈이라는 그 물에서 해방될 수 있었다. 그러나 공산주의라는 구조적인 권력체제 앞에 자신들의 자유를 제물처럼 바쳐야만 했다. 공산주의에서의 절대는 당이다. 당은 소수의 엘리트에 의해서 지배되는 통치기구인데 그것은 국민들 자신에게는 가혹한 자아비판이라는 것을 계속적으로 강요하면서 당 자체는 비판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그럼으로써 프롤레타리아는 또 다시 이 사회에서도 소외군상으로 신음하고 있다. 이에 반해서 자본주의 사회에 있

인간소외와 그 극복

어서는 민주주의를 표방하므로 정치영역에 모든 국민이 참여할 수 있는 길을 열어 놓았다. 정치적인 측면에서 보면 자본주의 사회는 민(民)이 주역을 하는 장이다. 이것은 민이 주인으로서의 자유를 향유할 수 있다는 말이다. 그러나 이것은 극히 표면적인 현상일 뿐 진정한 자유는 다른 것—그것은 보다 근본적인 것인데—에 의하여 그 기능이 마비되어 있다. 돈이 없으면 자유는 없다. 일을 해야만 돈을 벌 수 있다. 직장이 주어져야만 일을 할 수 있다. 직장은 거대한 기계와 같은 것으로 사람이 그 안에 한 일터를 갖는 순간 그 기계의 부분품이기를 강요당한다. 그러므로 일자리를 가진 사람은 이 거대한 기계의 부분품처럼 철저히 순응하여 따라가야 되며 그러기 위해서는 어떤 독자성이나 특수성 따위는 완전히 배제되어야만 한다. 그렇지 않으면 기계 전체가 돌아가지 않으므로 곧 갈아 치워야 하는 위치에 있기 때문에 사람이 자유를 찾아 돈을, 돈을 찾아 직장을 찾은 결과는 그 거대한 구조사회에서 완전 소외되는 존재가 되는 것이다. 어떤 회사에서 신입사원에게 준 훈계는 다음과 같은 것이었다. ‘당신은

안병무(교수·한국신학대학원장)

지금 XX그룹이라는 커다란 기계의 부분품이 되었습니다. 당신은 이 그룹에서 필요한 존재로 계속 자리를 지키려면 한 톱니바퀴로 의식하고 계속 돌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만일 당신이 자기 임무를 소홀히 하면 그 순간 이 전체에 이상이 생기거나 마침내 정지하게까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기계는 정지해서는 안됩니다. 그러므로 하나의 톱니바퀴인 당신이 그 기능을 다 할 수 없을 때는 사정없이 당신을 다른 것으로 대처하리라는 사실을 당연한 것으로 각오하시오.’ 이 신입사원에게 있어서 XX그룹이라는 자체가 카프카가 말한 거대한 성벽과 같은 것이고 그는 비록 부분품으로 돌아간다고 해도 그 전체의 목적이나 내용에 대해서 관여할 수 없는 상태, 즉 철저히 소외된 상태에서 사용되고 있을 뿐이다. 정부에는 있고 사람은 없다. 학교에는 있으나 학생은 없다. 기업에 있어 그 안에 기업주가 있고 기계가 있고 노동자는 있으나 사람은 없다. 생산 제일주의를 부르짖는 산업사회에 있어서는 다량의 생산, 그 소비라는 것만이 목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소비자는 있으나 사람은 없다. 결국 모든 제

도나 기술 등은 사람을 위해서 창안되었지만 결과적으로 사람은 소외되고 있는 것이 오늘의 비극이다. 마침내 컴퓨터가 발달되고 로봇트가 등장함으로써 사람은 컴퓨터적 구조에 의해서 감시받고 조종당하며 로봇트에 의해서 끝내는 일자리마저 빼앗겨 버리는 시대로 들어 가고 있다. 감옥에서 이름 대신 번호가 사람을 대신하는 것처럼 오늘의 인간은 고유한 이름은 점점 없어지고 번호로써 통솔되어 가고 있다. 그래서 이 땅의 주인이어야 할 인간은 주변으로 밀려나서 고독하다. 이것은 무엇인가 크게 잘못된 증거이다.

그러나 이것은 인간조건의 구체화이지 결코 새로운 것은 아니다. 성서는 이러한 소외현상의 필연성을 말하고 있다. 아담과 이브가 모든 것을 자기만을 위해서 독점하려고 하다가 낙원에서 쫓겨나야 했다. 카인은 종교를 독점하려다가 자기 동생을 죽이고 자기 살던 곳에서 영원히 추방되어야 했다. 바빌론은 신과 경쟁이라도 하려는 듯이 하늘을 뚫을 듯한 탑을 쌓다가 함께 살 수 없도록 분산당했다. 성서는 이러한 죄악상을 서술하는 것으로 시작한다. 그들에게는 그것에 의한 불행에서 해방될 기회가 주어지나 항상 이기적인 죄악으로 그 사회와 스스로에게서 소외당하는 역사로 반복된다. 이러한 죄악의 연속은 어쩔 수 없이 법질서라는 체제를 만들게 한다. 그러나 구약의 법은 구속하거나 처벌하는 것을 일차적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을 인간답게 살게 하는 도구로서의 질서를 일차적 목적으로 하고 있다. 구약은 강자의 편에 서는 질서가 아니라 가난한 자, 약한 자의 편에 서는 질서를 강조하는 것으로 강자와 부한 자의 횡포를 막고 그 밑에서

10 신음하는 약자와 가난한 자를 인간으로서 살 수 있는 사회를 만들려는 도구가 바로 법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다. 이와 같은 기본적인 사상이 신명기법전, 성법전 그리고 레위기법전 등에서 뚜렷하게 반영된다. 그것의 핵심을 이루고 있는 것이 저 유명한 십계명이다. 이 십계명을 한 마디로 설명한다면 권력을 제한하고 부자의 횡포를 막음으로써 힘 없는 자와 가난한 자를 보호하자는 것이다. 그러나 이스라엘이 군왕체제화됨으로써 법의 성격은 달라졌다. 가난한 자와 약자를 위한 법이 강자의 통치 이데올로기로 이용된 것이다. 법이 보호하자는 기능에서 다스리는 도구로 바뀐 것이다. 다윗왕조의 궁성이 화려해질수록, 그의 판도가 넓어지고 커지면 커질수록, 이스라엘백성은 그 왕조를 섬기도록 강요되었으며 하느님과의 관계에서 형성된 율법이 권력체제에 복종하는 책역의 역할을 하게 되었다. 다윗왕조라는 커다란 지배체제에 수족처럼 아부하는 극히 소수를 제외한 이스라엘백성은 이스라엘나라에서 완전히 소외되었다. 다윗왕조는 마침내 양분화되어서 통일되지 못하고 주변의 강대세력에 의하여 속속 침범되어 끝내 국권을 잃어 버린 이스라엘백성은 목자를 잃고 울타리를 잃은 양떼처럼 유랑해야만 했다. 계속되는 산홍제국 세력에 그 운명은 노예로 팔려다니는 여인처럼 몸을 더럽혀야만 했다.

이러한 상황에 휘둘린 이스라엘은 마침내 잃어버린 하느님과의 관계를 되찾기 위해서 단편적으로 전승되어 오던 말씀을 모아 경전화하는 작업을 편 것이다. 그 내용에는 다윗왕조의 사가에 의한 왜곡된 해석들이 있었으나 율법은 본래 인간을 통제하거나 치리(治理)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느님이 인간과의 관계의 회복과 유지를 위하여

사람과 맺은 계약이라는 사실을 확실히 했다. 계약은 지배자와 피지배자의 관계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동등한 동반자 사이에서만 가능한 것이다. 율법이 하느님과 사람 사이의 계약이라면 그것은 하느님이 사람을 그의 동반자인 인격으로 인정했다는 말이다. 여기에서 법은 사람을 소외하는 체제가 아니라 소외된 인간을 인간답게 하는 하느님의 은총이라는 신앙이 부활된 것이다. ‘나는 하느님과 계약을 했다’라는 신념은 어떤 체제나, 이데올로기나, 권력구조도 인간을 예측시키거나 지배할 수 없다는 확실한 신념이며 선포이기도 하다.

시리아의 뒤를 이어 로마의 식민지로 전락한 이스라엘은 지칠대로 지쳤다. 야훼의 신앙은 흐려지고 율법에 대한 회의도 날로 증가하여 이스라엘민족의 정신적 위기가 날로 가중되었다. 예루살렘성전은 의식종교의 전당으로서 그 부의 보호와 존속을 위하여 언제나 외세에 아부함과 동시에 정신적으로나 경제적으로 이스라엘민을 강요하고 착취하는 역할 이상을 하지 못했다. 이에 국민운동을 일으킨 일군(一群)이 있었다. 저들은 모세의 율법만이 아니라 예언서도 동원했으며 한 걸음 나아가서 저명한 랍비들에 의해서 율법을 해석한 교훈 자체마저도 동원하여 국민을 의식화하기 위한 생활규범을 만들었다. 이 규범을 온 이스라엘민이 생활화함으로써 자기 주체성을 상실하지 않게 하는 것을 그 목표로 하였다. 그 주역은 바리사이파들이었다. 이 국민운동은 한때 집권자에게 박해를 받았다. 그러나 저들이 집권권에 서게 되면서부터 이 국민운동은 강제성을 띠게 되었다. 이 때부터 국민운동으로서의 생활규율은 국민을 통치하는 이데올로기화 되었다. 그

와 더불어 율법의 정신은 역기능을 하게 된 것이다. 자들은 국민운동의 운동가의 위치에서 감시자의 위치로 돌아 서게 되었다. 바로 예수시대가 그 때이다.

이 바리새 체제에 있어서 예수에게 나타난 두 가지 예를 들어 보기로 한다. 하나는 안식일법이고 다음은 정결법이다. 십계명을 보면 남녀중, 기식하는 손님, 심지어 짐승까지라도 쉬라고 한다. 까닭은 이처럼 가진 자에게 예속된 자들로서는 안식일이 필요했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러한 안식일 정신이 체제화됨으로써 인간을 구속할 뿐만 아니라 계급을 형성하게 하고 많은 가난한 자와 눌린 자를 소외하는 결과를 가져 왔다. 안식일법에 쉬는 데 대한 조항이 39항이나 되는데 그 규정을 그대로 지키려면 어느 정도의 생활조건이 뒤따라야만 가능했다. 구체적으로 하루 일을 하지 않고도 먹을 수 있는 재산, 안식일에 쉴 수 있는 직업 등등은 필수조건이다. 그러나 예수 당시의 하층계급은 하루 벌어서 하루를 먹고 사는 사람들이 대다수였으며 목동이나 뱃꾼, 창기들은 안식일이라고 쉴 수 없었던 것이다. 가난 때문에, 천한 직업 때문에 안식일을 지킬 수 없는 자들은 죄인으로서 정죄되어 그 사회에서 소외될 수밖에 없었다.

정결법은 원래 사제계층에만 적용되던 것인데 그것을 이스라엘민 전체에 확대 적용함으로써 생활에 큰 변화를 일으킨 반면에 또한 소외현상을 일으켰다. 음식을 먹을 때에 손을 비토했서 몸을 씻는 제도, 부정한 것은 만져서도 안되는 것은 물론 부정한 자로 인정된 자들은 사람들과 어울릴 수도 없었으며 성전에도 참여할 수 없었다. 바로 그렇기에 그 사회에서 소외된 자, 즉 죄인인

것이다. 천한 노동하는 사람과 거지들에게 정결만을 요구하는 것은 그들의 처지를 전혀 고려하지 않은 것이다. 문둥병자나 혈우병자 등, 자기 잘못과 상관없이 부정한 병으로 간주된 자들 역시 사회적으로나 종교적으로 소외되고 말았다. 오물처리자와 가축을 이기는 자, 그리고 동물 굶는 자와 같이 악취가 몸에 배인 사람들은 사회와 종교에서 소외되어 마찬가지로 죄인으로 취급되었다. 한마디로 말해서 이 바리새 체제는 하층계급이나 천한 직업을 가진 사람들은 안중에도 두지 않는 체제이다. 이 체제는 사람은 없고 의인과 죄인만 있게 만들었다. 그 체제 안에서 의무를 다하는 자는 의인으로, 못하는 자는 죄인으로 존재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체제의 책임을 지고 있는 지도층은 체제 자체의 확립에만 관심이 있고 그들의 눈에는 인간 특히 불행한 인간들은 보이지 않는 것이다.

안식일에 예수와 그의 제자들이 밀밭 사이로 지나갔다. 제자들이 밀이삭을 부벼먹는 것을 본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은 저들이 안식일법을 범한다고 항의하였다. 이것이 바로 인간을 소외하는 체제의 제질이다. 이 체제를 대표하는 저들의 눈에는 배가 고플 자에 대한 측은함은 전혀 없고 오직 안식일법을 범했다는 것에 분노할 따름이다. 그것은 체제만을 생각함으로써 인간을 소외하는 사회의 구체적인 모습이다. 이에 대해서 예수는 폭탄적인 선언을 한다.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 있는 것이 아니고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서 있다. 사람의 아들은 안식일의 주인이다.’ 나는 주저 없이 이것을 인권선언의 제일호라고 말한다. 인간 부제의 체제에 대한 도전은 인간을 소외시키는 온갖 권력과의 싸움이다. 그 어떤 것도 사

12 람을 위해 있을 때 의미가 있는 것이지 사람에게 그 자체를 위해 있어 달라고 하는 그 어떤 것도 용인될 수 없으며 비록 하느님의 이름을 가졌어도 용인될 수 없다. 참 하느님의 뜻을 섬기고 모든 것을 그의 눈앞에 있는 존재로서 행하는 것은 인간소외의 길을 막는 유일한 첩경이다. 안식일법은 결코 체제 옹호를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다. 안식일이 사람을 돕고 사랑하는 일마저도 저해하는 제도인 한 과감하게 폐기해야만 한다. 안식일도 다른 날과 마찬가지로 선을 위해서 있어야 하고 사람을 살리는 일을 위해 있어야 한다. 그러므로 안식일에 어떤 불쌍한 불구자를 만난 예수는 그의 행태를 적대적으로 주목하는 적대자들에게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일과 악을 행하는 일, 사람을 살리는 일과 죽이는 일 어느 것이 옳으냐고 질문했다. 질문은 대답을 결정한다. 체제주의자는 그렇게 질문하지 않았을 것이다. 체제주의자는 안식일에 안식일법을 지키는 것이 옳으나 안 지키는 것이 옳으냐고 질문했을 것이다. 그러한 질문에는 인간이 완전히 소외된다. 여기에 대한 예수의 질문은 바로 인간을 소외시키는 체제의 체질에 저항하는 것이다. 안식일에 대한 이러한 예수의 뚜렷한 태도는 인간을 소외할 수 있는 어떤 명분도 허용하지 않고 있음을 의미한다. 그것이 권력체제이든, 생산체제이든, 이데올로기 체제이든 이 같은 예수의 질문을 관철할 때에 인간소외는 결코 허락될 수 없다.

예수와 그 제자들이 초청받은 집에서 음식을 먹다가 힐난을 받았다. 그것은 그들이 음식 먹는데 해당되는 정결법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이다. 음식을 먹기 전에 하는 정결법은 단순한 위생적

인 습성에서가 아니라 종교적 정결법으로 간주되었다. 정결법은 제의종교의 핵심이다. 제사 지내는 데에 엄격한 절차가 있듯이 일상생활에도 의적으로 가꾸어야 할 의무가 있다. 이렇게 의적으로 가꾸어야 할 의무들이 구원과 연결되어 해석되었던 것이다. 구약에는 바로 이러한 제사법이 태반을 점령하고 있다. 그런데 이미 상술한 대로 사제들에게만 국한되었던 그것을 하류계층에게까지 확대 적용시킴으로써 무서운 짐이 되게 하였고 앞서 예가(例擧)한 많은 소외자들이 생기게 되었다. 이에 대한 예수의 한 마디 말은 또 하나의 폭탄 선언이다. ‘겉에서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안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 사람들은 이 말씀을 비위생적이고 야만적이라고 할지 모른다. 그러나 그가 노리는 것에는 분명한 것이 있었다. 그것은 이 정결법에 의해서 소외된 이른바 죄인들이었다. 외적인 온갖 종교적인 행위의 의미를 완전히 상대화해 버림으로써 그것에 의해서 소외된 사람들을 모두 해방시켜 버린 것이다.

인간소외는 언제나 어떤 것이 절대라는 이름을 가지고 일어날 때의 현상이다. 무엇이든지 절대를 주장하는 것은 언제든지 하느님의 자리를 가로채는 것이다. 까닭은 절대란 하느님만의 자리이기 때문이다. 오늘의 정치, 경제, 과학에 연결된 모든 주의들이 유물적이면서도 신의 이름을 도용한 체제를 구축하기 때문에 인간을 소외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그런 것들 자체는 선도 악도 아니다. 그것이 인간을 소외할 때는 인류의 적이니 무엇보다도 예수의 적으로 알고 싸워야 하는 것이 우리의 의무이다. 